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걷기대회 D-3

‘효사랑’ 새기며 끝없는 질주

“건강을 함께 지켜요”

■ 남구청마라톤클럽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꾸준히 참여하며 기량을 닦아온 광주남구청마라톤클럽(이하 남구청팀)이 이번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걷기대회에도 참가해 구정 홍보와 함께 힘찬 질주를 펼칠 계획이다.

지난 1997년 창단한 남구청팀은 현재 회원 수 60명(남자 40명·여자 20명)으로 광주 구정 중에서도 가장 많은 회원으로 매월 2~3개 대회에 참가하며 친목과 건강을 다

지고 있다.

‘효사랑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남구청은 무엇보다도 활일봉 청장이 마라톤 매니아로서 건강하고 알찬 구정 전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황 청장은 울트라 100km 완주 2회, 풀코스 완주 12회, 하프코스 완주 50여회 등 화려한 경력도 지니고 있다. 남구청팀에 따르면 황 청장은 평소 ‘마라톤은 인생과 동일하다. 달리는 도중 극한 상황

매월 2~3개대회 참가

황에 접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 마침내 결승점에 도착하듯, 우리 인생도 목표를 향해 시간과 노력을 꾸준히 투자

하면 결국 성공하게 된다’며 ‘마라톤 철학’을 강조해 왔다고 한다.

이웃돕기 등 봉사활동 앞장

하프 18명·걷기 7명 등 총 25명이 참가하는 남구청팀은 이번 대회에서 전원 완주라는 1차 목표 외에도 1시간30분 이내에 하프 완주를 목표로 내세운 다섯명의 철각이 있다. 바로 송승현·배운식·김광용·김근식·이용호 회원이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오는 10월말 춘천대회에서 SUB-3(마라톤풀코스를 3시간내에 완주)를 달성하겠다는 당찬 목표까지 내세웠다. 이 대회가 뜻깊은 대회로 기억에 남을 회



효사랑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남구청마라톤클럽은 이번 대회에서 건강하고 알찬 행정 실천을 다짐하며 전원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도 있다. 하프코스에서 첫 도전을 내민 장인태씨와 클럽내 최연소 출전자 이지영씨, 그들은 설레임 속에 이번 대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청팀은 달리기 못지않게 봉사활동

에도 주력하고 있다. 매월 1회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마라톤 1km 당 100원씩 적립해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마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기금 90만원을 적립해 노인복지회관에 전달해 왔다.

남구청클럽 배운식 회장은 ‘항상 즐겁게 달리면서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몸으로 시민에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KIA ‘올드 유니폼’ 딜레마

‘V9’ 향수 젖은 중·장년층 위해 ‘빨강·검정 데이’ 계획

1위 살얼음판 질주에 부담... 19일 팬서비스 무산 위기



빨강 상의와 검정 바지.

9번 우승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전설의 유니폼’은 타팀팬들에게는 공포를, KIA 팬들에게는 향수를 주는 특별한 유니폼이다. 그러나 그 강렬한 유니폼은 KIA와 해태사이에서 고심하는 KIA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뜨거운 8월을 보내며 한국시리즈 직행의 희망을 밝혔던 KIA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예전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는 ‘올드 유니폼 데이’가 바로 그것이다.

오는 19일 LG와의 홈경기를 D-데이로 잡았던 KIA는 빨간색과 검정색의 올드 유니폼을 제작해 선수단에게 지급했다. ‘매일 경기가 끝나고 유니폼을 입어보고 있다’는 선수가 있을 정도로 추억과 역사가 담긴 유니폼을 받은 선수단의 호응은 뜨겁다.

그러나 정규리그 우승 길목에서 위기를 맞은 KIA는 19일 일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

에서의 이벤트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팬들의 입장도 둘로 나뉘었다. 팀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준비도 끝난만큼 성적과 상관없이 팬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됐다.

그동안 두산과 롯데는 올드 유니폼데이를 선보여 팬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KIA도 팬들로부터 올드 유니폼데이에 대한 끊임없는 요청을 받았다. 문제는 두산, 롯데와 달리 KIA는 모기업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팬들의 요구에 쉽사리 응할 수 없었던 이유다. 한 해에 수백억원대의 투자를 해가면서 야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른 기업의 색이 진하게 남아있는 과거를 완전히 포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 아직도 해태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있을 정도로 KIA는 남남인 해태의 과거가 더욱 부담스럽다.

KIA는 올 시즌 팀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쓰며 제 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을 통해 젊은 야구팬들이 급증했고, 야구장을 떠났던 중·장년층이 다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야구를 잊고 살던 중·장년층 팬을 다시 야구장으로 불러들인 것은 예전 해태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거침없는 플레이의 영향이 컸다. 투수 왕국을 재현한 든든한 마운드와 호쾌한 공격, 끈질긴 승부는 이들의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만큼 올 시즌은 올드 유니폼 데이에 대한 팬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돌아온 중·장년층을 확실한 KIA팬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1위 자리가 흔들리면서 올드 유니폼 데이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를 기다렸던 팬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KIA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선수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게 됐다.

타이거즈라는 이름으로 예전의 성적과 역사를 그대로 물려받은 KIA, 그에 대한 추억도 KIA의 몫으로 남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는 20일 열리는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걷기대회 행운상추첨식이 16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추첨은 금남지구대 강상진 경위(왼쪽)·서성만 경사(오른쪽)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일보 마케팅본부 신형락 본부장(가운데)이 진행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휴튼CC 19일 그랜드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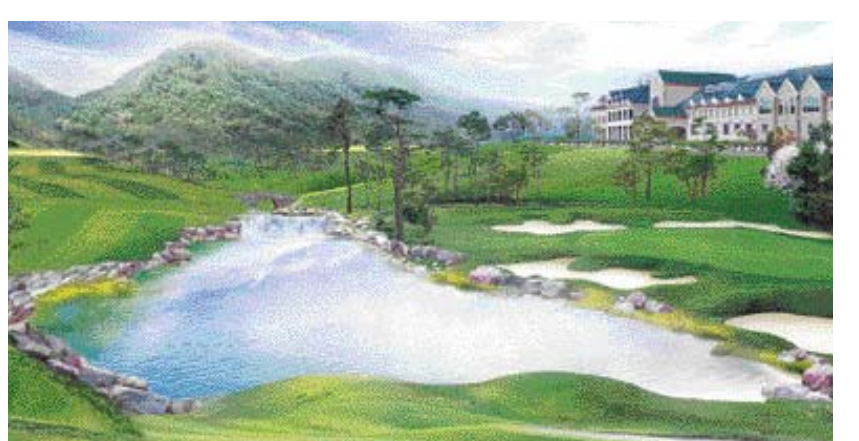
나주 다도면 27홀 개장

나주시 다도면 송화리에 위치한 휴튼 컨트리클럽(대표이사 마형렬·이하 휴튼CC)이 19일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갖고 새로운 명문골프장으로서의 힘찬 첫 발을 내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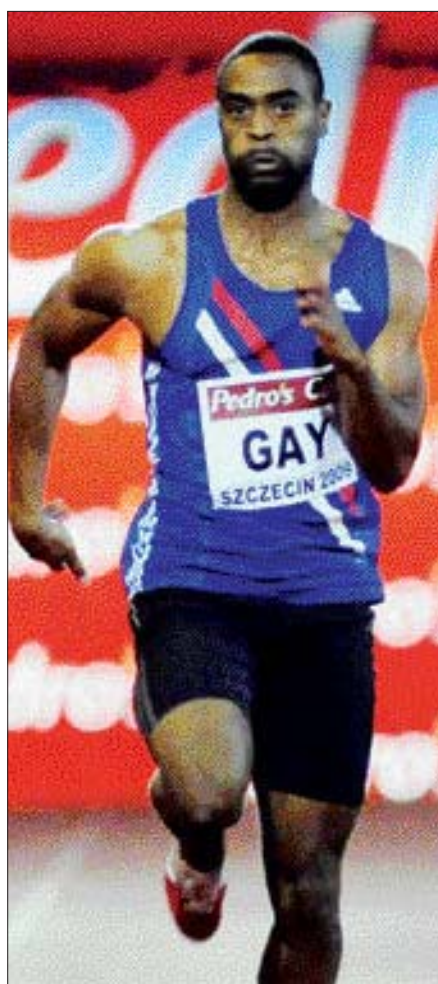
휴튼CC는 회원제 18홀(총 6,440m), 대중제 9홀 등 총 27홀로 조성된 골프장이다.

바람이 적은데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게 특징이다. 수백년된 자연수목과 연못·계곡을 조화시킨 환경친화적 골프장이다. 여기에 30m 높이의 분수를 설치하는 등 조경미를 가미해 아름다운 정원같은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접근성도 뛰어나다. 광주 시내에 약 20km정도 거리로 서광주 IC에서 20분대면 도착가능하다. 서광주 IC-남평 오거리간 4차선 도로가 신설돼 교통망도 편리하다.



휴튼CC의 최대 강점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점이다. 대부분 홀이 천연 계곡과 연못을 접하고 있고, 페어웨이는 적절한 언드레이션을 가미해 도전성과 전략성을 동시에 느끼도록 조성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율처럼 코스的高低에 따른 하모니를 연출하도록 돼 있다. 클럽하우스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코스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클럽하우스는 유럽풍의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또 자연미가 물씬 묻어나는 정원,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도입한 패시브 하우스, 고객동선을 고려한 공간 구조는 편안함과 함께 품격을 제공한다. 휴튼CC 관계자는 “최상의 서비스와 철저한 코스관리로 지역민의 레저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슨 게이>

‘번개’ 볼트 대신 ‘인간탄환’ 게이·파월 25일 대구국제육상대회 온다

남자 육상 100m 세계랭킹 2,3위인 타이슨 게이(27·미국·왼쪽)와 아사파 파월(27·자메이카·오른쪽)이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릴 2009 대구국제육상대회에 참가한다. 대구육상조직위원회는 16일 게이와 파월이 이날 새벽 참가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예초 방한할 예정이던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가 향수병 탓에 집에 돌아가겠다고 갑작스럽게 기권하면서 차질이 빚어졌으나 ‘인간탄환 3총사’의 축을 이루는 게이와 파월이 참가를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대구국제육상대회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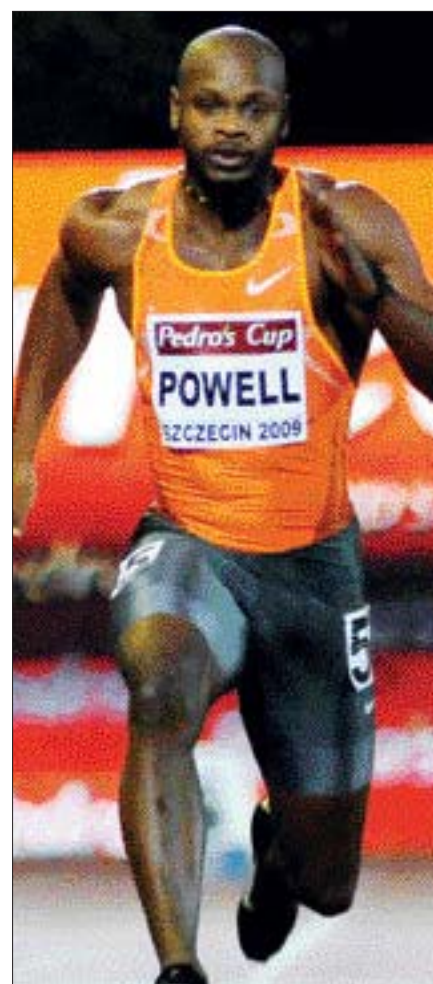
2007년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0m와 200m, 400m 계주에서 우승, 사상 네 번째로 세계대회 3관왕을 달성한 게이는 허벅지 근육통이 도져 지난달 막을 내린 베를린 세계대회 100m 결승에서는 9초58을 찍은 볼트에게 뒤졌지만 9초71이라는 자국

신기록을 세우고 은메달을 땀다. 최고기록이 9초72인 파월도 당시 레이스에서 9초84를 찍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9초대를 50차례 이상 뚫은 스프린터로 볼트가 나타나기 전까지 세계기록을 보유했다.

마크 번스(트리니다드 토바고·최고기록 9초96)까지 세 명이 대구스타디움 트랙을 달굴 예정이어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서 100m 9초대 기록을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

문동후 2011 대구세계육상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볼트, 게이, 파월 3인방이 함께 뛰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볼트의 방한이 무산된 뒤 게이와 파월에게 급히 연락했고 참가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풀이 오면서 호화 멤버가 완성됐다”며 기뻐했다.

게이와 파월은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그랑프리대회를 치른 뒤 한국땅을 밟을 예정이다. 게이와 파월은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다. /연합뉴스



<아사파 파월>